

# “한 업체 주소가 3개...울촌1산단 경계조정 해달라”

### 지자체간 이해관계 얽혀 20년째 제자리...주민 불편 광양경제청, 행안부장관 조정권한 부여 제도개선 건의

울촌1산단에 있는 A업체는 주소는 3개다. 여수·순천·광양시 주소가 한 울타리 내에 있다. 당연히 관할 지자체도 3곳이다. B업체 등 9개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다만 관할 지자체가 3곳이 아닌 2곳이다. 지자체 관할 구역과 주민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화재 등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소방·경찰 등 관할이 불분명해 초기 대응이 지연될 우려도 있다.

이는 바다를 매워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빚어진 결과다. 경계 조정을 하려해도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 20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 간 자율조정 이 안 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울촌 제1산업단지는 여수시 울촌면,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해면 일대 바다를 매립해 910만8000㎡(약 276만평) 규모로 조성됐다. 지자체별 관할 구역은 여수 26%, 순천 42.5%, 광양 31.5%다. 행정구역 경계가 해상을 기준으로 나눠

면서 무려 15필지의 주소지가 여수, 순천, 광양의 행정구역과 겹치게 됐다. 이미 입주한 10개 회사가 행정구역이 2-3개 겹친 곳이다.

이들 회사는 지방소득세를 내려고 복수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가 하면 주민세 납부, 지적측량 등도 중복 처리해야 한다. 화재 등 돌발상황이 생기면 소방, 경찰 등 관할이 불분명해 초기 대응이 지연될 우려도 있다. 지자체 관할 구역과 주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주민 불편이 야기되는 데다, 지자체 간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경계 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세수 감소와 관할 구역 축소 등을 우려한 해당 지자체의 소극적 대처, 지방의회 반대로 수십년째 경계 조정이 이

뤄지지 않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마냥 두고 볼 수 없다며 합리적·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 마련을 건의했다. 해당 지자체 간 자율조정을 바라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친 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행정의 이해관계보다는 주민 불편 해소가 먼저라는 것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일 규제혁신 현장감담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한 데 이어 14일 인천에서 열린 전국경제자구역청장협의회에서 지자체 관할 구역 경계 변경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시의회 의정비 2.6% 인상

광주시의회 의정비가 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반영해 내년도 인상된다.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5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 월정수당을 3874만원으로 98만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월정수당에 의정 활동비 1800만원을 포함해 내년도 의정비는 5674만원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앞서 시의회는 지난 12일 의원 감담회를 열어 이 같은 인상안을 시에 요청했다. 의정 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연구 등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매달 지급되는데 동일정책제로 광역의회는 1800만원, 기초의회는 1320만원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말바우·양동시장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광주의 대표 전통시장인 말바우시장과 양동시장 주변에 무단횡단 금지 시설이 설치된다. 광주시는 17일부터 이틀간 말바우시장 주변 통일로·약국·현악국 간 200m, 양동시장 주변 양동초교 앞 육교·중앙신경외과의원 간 220m 구간의 도로 중앙에 울타리 형태의 무단횡단 금지 시설을 설치한다. 말바우시장은 고려자 등 무단횡단

자른 지역으로 올해 교통사고로 인한 2명이 숨졌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12일 광주시와 경찰청, 북구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이 현장 합동점검을 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결정했다. 양동시장은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양동초교 학생들의 이동하는 곳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한국프라임제약 등 국내외 백신제약회사 4곳

### 화순백신특구에 170억 투자

전남도는 15일 국내외 유망 바이오 제약 기업인 바이로슈어·썬영사이언스·썬리진·한국프라임제약과 백신 산업 투자협약을 했다. 4개 기업의 총 투자 규모는 170억원이다. 협약에 따라 4개 기업은 전남도·화순군과 함께 백신원액 제조, 백신제품 개발, 화순백신산업특구 공장 건립·운영 등에 나선다.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바이로슈어와 썬영사이언스는 면역치료제 분석 시험과 세포주 품질관리에 대해 기술 투자에 나선다. 두 기업은 바이러스 시험검사 같은 핵심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의약품 안전성 시험 특화 업체다. 썬리진은 난치성 질환의 유전자 치

료제 연구를 통해 치료용 바이러스 개발 기술을 보유한 유망 벤처기업으로, 항암 치료제 개발·생산 사업에 전남도와 협력한다. 한국프라임제약은 전문의약품 연구개발·제조판매 등으로 연 매출 1000억 원을 기록하는 중견기업이다. E형 간염 백신과 노인성 황반변성 예방 치료제 등 바이오 신약 공동 개발과 함께 의약품 생산시설을 투자한다. 이들 기업의 협약 체결로 화순 백신특구가 백신 연구개발·임상·생산 등 전 과정을 갖춰 기술적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가 첨단바이오산업으로 육성 중인 항암 면역세포치료 산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아트광주 18’ 개막 ‘아트광주18’이 15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아트광주18’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프랑스 등 10개 국가에서 71개 갤러리가 참가한 가운데 102명의 유명작가들의 작품이 선보인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전남도 시책 ‘가고 싶은 섬’ 자문위원 새로 뽑는다

### 2024년까지 24개 섬 선정...3기 위원 조만간 구성

전남도 브랜드 시책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의 자문위원회가 새로 꾸려진다. 총 사업비 1000억원 규모의 전남도 브랜드 시책인데, 자문위가 사업 대상지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위원 선임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가고 싶은 섬 사업은 2015~2024년 전남지역 24개 섬을 선

정해 섬 고유의 생태자원을 보존하고 회복하는 사업이다. 섬 문화를 관광자원화하고 마을 소득을 창출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섬 가꾸기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여수 남도, 고흥 연흥도, 강진 가우도, 완도 소안도, 진도 관매도, 신안 반월·박지도, 보성 장도, 완도 생일도, 여수 손죽도, 신안 기점소안도, 완도 여서도, 진도 대마도 등 12곳이 선정됐다. 2024년까지 24개 섬에 모두 1000억원

사업비를 쏟아부어 각종 섬 개발 사업을 한다. 섬 한 곳당 40억원이 투입되는 만큼 섬 주민은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어느 섬이 가고 싶은 섬 사업 대상지로 뽑힐 지가 관심사다. 사업 첫해에 6곳을 선정하고 매년 2곳씩 뽑고 있는데 사업설명회, 주민설명회,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사업대상지를 접수한 후 서류·현장평가 후 평가단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자문위원 중 7~10명으로 꾸려져 이들이 섬을 선정하

는 만큼 사실상 자문위원회가 사업대상지를 고르고 있다. 현재 2기 자문위원 임기가 이달 말 끝남에 따라 3기 자문위 구성을 앞두고 있어 어떤 인물들이 자문위원에 오를지 주목된다. 2기 자문위원은 민속·문화·관광·환경생태 전문가 각각 4명, 연구원 2명, 유관기관 관계자 3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3기 자문위원도 18~20명 선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앞으로 2년이다. 다만, 2기 자문위원 구성때 한 단체 소속 회원들이 3명이나 포함됐고, 1기 위원 4명이 2기 위원에 또 뽑혀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특히 위원 선정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논란을 부추겼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자 선정 감사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발표를 마무리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의 전 과정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7~8일 이틀간 시민심사단과 제안심사위원회 평가회를 개최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5개 공원 6개 지구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중앙공원 1지구 광주도시공사, 중앙공원 2지구 금호산업, 중앙공원 한국토지신탁, 일곡공원 라인

산업, 운암산공원 우미건설, 신웅공원 산이건설 등이다. 이 결과에 대해 일부에서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관련 법규준수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지침과 제안 요청서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엄정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과정에 문제를 제기해 감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투명하게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보청기**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2013-GN1-10-0067  
www.maxo.co.kr \*이 제품은 '연료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귀여움~

# 또는 보청기를 처음, 다시 하려면...!

- 매우 중요한 사실 -

일반적으로 귀가 어두우면 보청기로서 소리를 크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성(노화성) 신경성 난청은 다릅니다. 소리만 크게 해주면 청각 인식범위가 좁아 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웅웅거립니다. 이는 청각 신경세포가 퇴화되어 보충현상(Recruitment)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청기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보청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소리를 크게 하되, 말소리(어음)와 여러가지 소리를 잘 인식·식별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적 능력이 없으면 소리는 크게 들리지만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한 것이 '맥소' 보청기의 기술·기능입니다. 대한보청기는 '맥소' 보청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난청과 보청기는 소리의 인식과 식별의 기술이 핵심이므로 대한보청기는 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격부담이 적어야 하므로 맥소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맥소'프로'** **맥소'스텝'** **맥소'크리스프'** **맥소'스코프'** 등은 그러한 상위기능의 제품군으로 소개됩니다. 대한보청기의 본사 직영센터는 보청기의 상위핵심 기술로서 소리의 식별·인식의 기술 및 기능을 매우 중시하며, 누구나 잘 들을 수 있도록 맥소를 시험관장해 드리므로 안심하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책자 무료 발송**  
보청기의 종류, 가격, 시험세트, 상담, 검사, 구입, 유지보수 등 안내

**365일 전국, 천사 무료 방문 서비스!**

광주·전남 본점 **0621430-8900**  
전북·전주 본점 **0631251-4999**

**RIE(8-16채널) 고급제품 대할인 특별행사!! 보조금으로 고급제품 구입!! (청각장애등급 2-6급 소지자)**

◆장안본사 02)2248-5600 ◆충주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안양본점 031)442-24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천)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창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